

## 전쟁경험과 소설, 기억 서사의 변주와 해석의 계보

-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를 중심으로 -

이 선 미\*

### 차 례

- |  |   |
|--|---|
| 1. 전쟁경험, 기억, 박완서 소설과 그<br>에 대한 해석                              | 3. 1990년대 한국사회, 박완서는 전쟁<br>경험을 ‘사실’대로 말한다<br>- 기억/망각의 서사에서 복원의 서<br>사까지 |
| 2. 2010년대 한국사회, 『나목』을 해<br>석하다<br>- 회복의 시간성을 거부하는 전<br>쟁상대적 신체 | 4.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전쟁경험<br>을 기억하기’ 서사가 공론장을 확장<br>하다                   |

### 국문초록

박완서 문학에서 전쟁경험의 서사적 재현은 등단작 『나목』에서 시작되어, 부역혐의자 가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1970-80년대의 단편소설들을 거쳐, 1990년대 자전소설 두 편으로 완결된다. 전쟁경험을 ‘기억하는’ 서사는 전쟁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말하는 행위’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재현한다. 기억

\* 경남대학교 교수

이라는 방법론으로 인해 전쟁경험은 시기시기마다 다른 이야기로 변주되며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가늠하듯이 창작된다. 냉전, 탈냉전,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등,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맞추듯이 서사적으로 변주된다.

전쟁경험 서사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변주되듯이, 박완서 문학 '연구' 역시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 국면의 변화를 반영하고 매개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다. 2010년대 이후 『나목』이 전쟁의 폭력을 앓고 있는 신체성으로서 전쟁 경험을 재현한다고 해석될 때,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와 전쟁 연구 학술담론장의 변화가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를 해석하는 관점에까지 영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 문학이 창작되고 해석되고 담론화되는 양상은 정치사회적 변화나 학술지(知)와 공명하며, 이를 통해 소설 창작과 해석의 관계성을 사유할 수 있다.

주제어: 전쟁경험, 소설, 기억서사, 해석, 박완서, 이행기 정의, 탈/냉전, 자전소설

## 1. 전쟁경험, 기억, 박완서 소설과 그에 대한 해석

한국(근)현대문학사에서 한국전쟁은 문학적으로 가장 비중있게 취급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국제정치적 진영 갈등으로 분단된 채 전쟁이 시작되었고, 남북한이 서로 적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후퇴하고 수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초토화되어버린 전쟁이었기에 피해의 규모와 양상은 막대한 수준이었다. 특히 남한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한강 다리를 폭파하며 대구로 피난을 가버림으로써, 혹독한 점령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적군이 점령지를 확대해감에 따라 정부가 퇴각을 진행하면서 ‘보도연맹원’을 대량 학살하는 국가폭력의 피해 현장을 만들어낸다. 재판 과정없이 진행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은 전국토에 걸쳐 벌어지고, 전국민이 경험할 정도의 일반적 사건이었다.<sup>1)</sup> 한국전쟁은 전투 현장에서 적의 총탄에 의해 사살되고, 혹은 적을 쏘아 죽이는 식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달랐다. 적군에게 점령되기 전에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권력에 의해 생활의 터전에서 검거되고, 사살되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서울이 수복되기 전까지 남한의 전국토에서 마을 단위로 이런 식의 국가 폭력은 정당한 듯이 공공연하게 연출되었다. 대다수의 평범한 민간인들은 적군에 의해 점령당하기 전에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를 먼저 경험하였다.

나라와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가서 죽었다. 그렇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 한국전쟁에서 대량학살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발생했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적으로 느껴야 했던 것은 국가의 최고위층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긴 병사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자는 밀실에서 죽음을 결정하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위정자들이지 피해자와 대면해서 총구를 겨누는 실행자들이 아니다.<sup>2)</sup>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증언자의 인터뷰와 구체적 정황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피해/가해의 측면을 조망한 2014년 연구서 『가면권력』의 머리말 시작 부분이다. 위 인용문은 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었던 전쟁의 성격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남았던 자들과 터전을 버리고 도망

1) 대한민국 국군이 후퇴하면서 전국토에 걸쳐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을 사살한 사건은 학살과 폭력의 경험, 이것의 문학적 재현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전쟁경험이다. 특히 냉전의 통치로 인해 오랫동안 봉인된 사건이기에 이 전쟁의 경험이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견뎌보는 것도 가능하다.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부산경남 지역)』, 역사비평사, 2002 참조.

2)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9쪽.

간 자들의 윤리를 뒤집어버리는 역설, 학살의 가해와 피해를 가려버리는 권력의 무책임 등, 살육이 벌어진 현장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피해의식과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던 잔혹한 전쟁임을 함축하는 전언이다. 이후 냉전과 독재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이런 식의 경험과 관련된 기억들은 봉인된 채 공론화될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한국전쟁 관련 공식 기억의 편향성을 부정하며 ‘망각 정치’에 의해 봉인된 ‘사실’들이 서서히 밝혀진다.<sup>3)</sup> 그러나 가해/피해의 구도로 개개인의 구체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생생한 증언적 기록들은 쉽사리 공개되지 못한다.<sup>4)</sup> 한국전쟁 경험을 국가의 공식 기억 만으로, 즉 반공주의에 입각한 한 편의 경험 만을 전쟁의 전체적인 사실로 이해하던 것과 달리, “나라와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가서 죽었다”는 식의 전쟁의 실상을 구체적 근거들을 통해서 사실로서 이해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전쟁의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당시의 기록이나 정황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구성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단된 것이 2000년에 간행된 『전쟁과 사회』이다.<sup>5)</sup> 위 인용문의 “나라와 정부를 믿었던 자들은 끌려가서 죽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전쟁의 사실은 2000년 『전쟁과 사회』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대로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갱신된다.<sup>6)</sup> 한국사회

3) 이 시기 학살 연구가 증언하는 행위, 또는 기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성에 관심으로 기울이고,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사적 현상이기도 한다. 독일 나치즘의 유대인 절멸에 관한 연구가 심화된 것이나,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광주학살 연구 등의 사회적 기억 연구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6 참조.

4) 역사학자 김성철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의 삶을 일기로 남긴다. 이런 일상적 기록도 87년 민주화 이후인 1993년에 책으로 출간된다.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참조.

5)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11쪽.

6)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실 규명 작업은 김동춘의 『전쟁과 사회』를 시작으로 『끝나

에서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한 한국전쟁의 구체적 정황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냈는가라는 사실들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한다.<sup>7)</sup>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전쟁기의 사실 규명이나 증언의 과정이 21세기적 현상이었던 것에 비해, 문학(소설) 분야의 전쟁서사는 1970년대부터 이미 트라우마의 감각기억 등으로 공식 기억에 반(反)하는 경험을 재현한다.<sup>8)</sup> 1970년에 발표된 박완서의 전쟁경험 소설들은 이 목록에 포함되며, 『나무』은 “나라와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가서 죽었”지만 “그렇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는 점령기 서울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역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부산 경남 지역)』(김기진, 역사비평사, 2002),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윤택림, 역사비평사, 2003),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이임하, 책과함께, 2010),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김득중, 선인, 2009), 『마을로 간 한국전쟁』(박찬승, 돌베개, 2010), 『가면권력』(한성훈, 후마니타스, 2014), 『전쟁과 가족』(권현익, 창작과비평사, 2020)으로 이어지며 체계화된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간행된 역사학 연구서들이다.

- 7) 구술사 연구나 국가주도의 과거사 연구위원회 활동들을 통해 국가 폭력과 집단 학살이 연구되고 전쟁의 사실들이 규명되는 것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근식, 앞의 글 참조.
- 8) 1970년대 초반 국제사회는 미국과 소련의 긴장관계가 다소 누그러지는 데탕트적 변화를 맞이한다. 동서 냉전의 구조가 완화되고 정치적 해빙의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정치적 긴장이 상시화되었던 분단국가인 한국은 직접적 영향권에 들 수 밖에 없다. 이 변화의 틈새에서 사회적으로 전혀 공식화되지 못했던 월북자 가족이나 빨갱이 가족의 삶이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빨갱이 자식’ 혹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신원의 문제가 소설의 인물이 처한 삶의 고통이나 운명적 굴레로서 재현된다. 김원일, 박완서, 이문구, 황석영, 이병주 등의 소설을 꼽을 수 있다. (이선미, 「냉전과 소설의 형식, 〈경남〉진영의 장소성과 사회주의자 서사(1)」,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2021.4 참조) 최근에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 서사 연구가 국문학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꺼번에 발표되기도 하는데, 1970년대 소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김요섭, 『한국 이행기 정의 국면의 제노사이드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이시성,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폭력 기억서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등 참조.

아무리 콧대를 돋우고 거만을 떨어도 누가 모를라고 저도 6.25 땀 도  
 망을 쳤겠지. 우리를 그 몸서리치는 살벌과 잔혹의 지배 하에 동등이쳐  
 놓고 비실비실 도망친 주제에 남아서 온갖 것을 인내하고 감수한 끝에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는 우리를 아주 불쌍한 듯이 보다니, 아니꼽게.  
 별꼴이야 별꼴이야. 저까짓 게 뭐라구. 여자와 망령밖에 없는 집이라구  
 업신 여기구.

…… 중략 ……

‘비겁한 새끼. 도망병. 누가 모를 줄 알구.’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말, 도망병이란 말이 마음에 썩 들어  
 서 적이 속이 후련해졌다.<sup>9)</sup>

40년 세월 동안 같은 속도로 꾸준히 소설을 발표한 박완서는 한국전  
 쟁의 경험과 가장 밀착된 작가로 평가되며, 『나목』은 그 첫 소설이다. 『나  
 목』에서 최고 수위의 전쟁 경험은 한강 다리가 폭파되어서 피난을 못가  
 고 인민군이 점령했던 서울에 남아서 숨어지내던 청년 남성들이 폭격에  
 의해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죽는 사건이다. 이 청년들  
 의 가족들은 집안에서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고, 트라  
 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죽음 이후 서울에 남겨졌던 사람들은 ‘잔  
 류’<sup>10)</sup>로서 점령기 서울에서 지낸 시간을 빌미로 사상검증의 대상이 되  
 기도 한다. 위 인용문의 “도망병”이라는 말은 전쟁경험의 비공식적 서사  
 와 분노가 함축된 정동적 언어인 셈이다. 실제 경험의 기록이나 문헌 연  
 구를 통해서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던 1970년에 소설 『나목』은 수도 서  
 울의 점령기 경험을 생생하게 구성한다.

9)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182쪽.

10)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정부는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대구로  
 피난을 간다. 이후 1950년 9월28일 공식적으로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3개월 간  
 서울은 인민군의 점령상태였다. 서울이 수복된 후 복귀한 정부는 서울에 남아있  
 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민군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상검증을 하였다. 이때  
 서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역혐의자로 분류된다. ‘잔류파’와 ‘도강파’  
 는 이 부역자 판정과 관련해서 생긴 명칭이다. 이입하, 『전쟁기 부역자 처벌』, 『  
 사림』 36, 구선사학회, 2010 참조.

1978년에 발표된 『목마른 계절』이나 1981년의 「엄마의 말뚝 2」, 1990년대의 자전소설 2부작 등,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경험의 서사는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한국사회의 냉적적 질서를 구축하는 정치 프레임이나 그에 저항하는 사회변혁운동의 역학관계에 따라 봉인된 전쟁의 경험이 해체되듯이 서사적으로 변주된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정치적 담론이나 제도적 변화와 함께 서사적 형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이루어내며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박완서의 전쟁경험 소설은 같은 이야기임에도 계속 다른 이야기로 변주되며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가늠하듯 창작된다.<sup>11)</sup> 한국전쟁이 해석되는 사회적 지(知), 혹은 담론장과 박완서 소설의 관계는 냉전의 통치가 지속되는 과정, 혹은 탈냉전의 세계적 변화에서 냉전 상황이 재편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재현 서사로서 사유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박완서 문학 연구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해석의 지평을 달리한다.

냉전/탈냉전의 전지구적 변화, 개발주의적 산업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변화, 그로 인한 공론장적 구조, 상식적 관념의 변화 등이 전쟁경험을 기억하는 서사적 재현에 밀접히 영향관계를 형성하듯이, 2000년을 기점으로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는 연구 관점에도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한다. 박완서의 전쟁경험 서사는 반복적이면서도 전쟁 경험이 발설되는 상황, 즉 기억하는 행위가 실현되는 시점의 상황으로서

11)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경험 서사가 반복되면서 변주되는 것은 주요한 연구대상이며, 논쟁적인 지점이다. 김열이 다소 느슨해지는 등의 법적, 제도적 이유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통치권력의 작동과 관련한 사회적 요인들이나 상식적 관념, 혹은 문화적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담론이 변하지만, 이 담론적 변화와 사회의식의 관계성 속에서 자전소설의 전쟁 서사가 변주되는 것을 해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참조. 전쟁경험이 반복되는 현상은 주로 검열망의 변화로 해석된다. 강진호, 「전쟁기의 증언과 반공주의의 규율 -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 개작 양상」, 『인문과학연구』 40,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참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사회의 냉전, 탈냉전, 자본주의의 성격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당대적으로 변화한다. 소설의 전쟁서사가 변주되는 궤적과 공명하듯이, 박완서 문학 연구 역시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 국면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 텍스트성’을 새롭게 탐구하고 해석한다.<sup>12)</sup> 식민지, 분단, 탈/냉전, 자본주의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의 ‘한국사회를 소설에 재현한 박완서 문학’에 관한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 국면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향성을 띤다. 한국사회의 정치사, 지식사, 혹은 공적 담론장의 변화, 사회문화적 의식구조를 반영하듯 해석의 지평이 달라져감을 일별할 수 있다. 예컨대, 1991년의 논의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0년대의 논의는 국가주도의 과거사 진상규명 논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었던 공적 담론의 변화와 관련되며, 2010년대의 변화는 2000년대의 과거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페미니즘 리부트, 정동 연구 등의 학술 담론장의 변화와 긴밀히 연동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란 무엇인가? 냉전의 구조가 흔들리며 대전환을 마주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향해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발동시키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문화나 사회심리적 구조 등이 자유주의적 다원화된 양상으로 변화했다. 이 변화를 기반으로 여전히 삶이 구성되고, 재편되고, 새롭게 조성된다.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의 변화 과정, 그리고 그 작품들에 관한 연구의 변화과정은 ‘소설’이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감각관 같은 것으로 역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런 관계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12) 박완서 문학을 연구하는 키워드는 주로 여성, 젠더, 전쟁, 중산(층) 등이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전쟁 경험이 박완서 문학의 기원처럼 작동하는 양상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키워드를 용해시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텍스트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신선훈,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 72, 동악어문학회, 2017.8 참조.

## 2. 2010년대 한국사회, 『나목』을 해석하다 - 회복의 시간성을 거부하는 전쟁상태적 신체

1970년에 발표된 『나목』은 박완서의 등단작이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발발한 후, 서울이 수복된 9월까지 인민군 점령기의 서울에서 숨어 지내던 두 오빠가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하고, 어머니와 딸만 살아남아 죽은 오빠들의 죽음을 견뎌가는 이야기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있듯이 『나목』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박수근과 박완서가 미군 PX의 초상화부에서 만난 인연을 소재로 한 이야기이며, 오빠의 죽음을 겪었던 박완서의 전쟁경험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소설의 중심적인 사건은 정부가 버리고 간 서울에 남아 생존해야 했던 사람들의 전쟁경험과 그 재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도덕 관념, 그리고 전쟁의 폭력에 묶인 개인의 삶이다. 전쟁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과 그 폭력의 시간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설득하는 회복담론의 충돌을 정면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국군의 가족인 큰아버지 댁과 젊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 주인공의 가족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했으며, 널따란 고가의 가옥구조를 활용하여 넓고 비좁아서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에 이 남자들을 숨긴 채, 인민군 점령기의 살벌한 생활을 버텨간다. 결국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공중폭격이 극성하던 시기에 이 고가의 행랑채는 폭격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버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오빠들이 졸지에 비명횡사한다. 폭격으로 갈가리 찢긴 죽음의 현장을 목도한 어머니와 딸은 이 폭격에 의한 죽음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의 상처와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전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남는다. “폭음”으로 각인된 청각, “하얀 이불호청 위에 흩뿌려진 핏빛”으로 각인된 시각 등은 몸의 감각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트라우마로 남고,

감각적 기억으로 각인된 전쟁의 경험은 과거로 제한되지 않는 현재형의 삶의 문제로 표현된다. 박완서의 첫 소설 『나목』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는 감각기억에서 시작되며, 그 감각의 의미를 탐색하는 소설이다. 그 감각의 현장으로서 점령당한 서울의 실물성 역시 중요한 소설적 요소이다.

전쟁의 중심지인 서울은 『나목』의 주인공에 버금갈 만큼 주제를 구현하는 실물적 감각의 실체라 할 수 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만연한 죽음의 기운과, 복구와 성장을 향한 욕망과 활기 같은 정반대의 기운이 공존하는 서울은 주인공 이경의 내면적 분열을 암시하는 듯 조명되며, 이 극단의 두 가지 면모는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이경의 분열적 자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쟁의 현장이라는 장소적 물질성과 전쟁 이후의 미래사회로 도약하고자 하는 관념 사이의 이중성을 견디는 주인공의 분열적 내면이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경은 폭격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흉물스러운 고가와 화려한 미군 물품들이 소비 욕망을 들쭉시는 피엑스 사이를 진자운동하듯이 왕복하며 까닭을 알 수 없는 무서움증에 시달리며 방황한다. 원인이 불분명한 두려움으로 인한 이경의 신경질은 변덕스럽고 위험천만한 연애의 욕망으로 불안정하게 전개되면서 병적 징후인 듯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적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와 폭격에 의한 죽음을 목도한 전쟁의 트라우마의 흔적임이 서서히 드러난다.

전쟁이 끝났어도 두려움과 공포와 억울함 등, 신체화된 감각으로 전쟁을 앓고 있는 이경이기에 점령에서 벗어나 서울이 수복되고 휴전이 논의되는 전후의 삶에 동참하지 못한다. 오빠들이 잔혹하게 죽은 현장을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이경과 어머니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경은 폭격과 죽음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계속 거리를 달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경의 행보는 전쟁의 상처를 공간적으로 감각화하는 서울의 지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경은 분열적 내면과 방황의 원인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전후의 질서임을 점차 깨

달아간다. 전쟁이 끝났다는 ‘전후’의 시간관과 상관없이 이경의 몸은 지붕이 날아간 폐허처럼 전쟁의 상처를 지닌 채 여전하고,<sup>13)</sup> 이 상처로 피 흘리는 감각은 그 자체로 ‘전후의 시간’을 부정하는 실상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나는 심하게 찢기고 있었다. 새롭고 환한 생활에의 동경과 지금 이대로에서 조금도 비켜설 수 없으리라는 숙명 사이에서 아프게 찢기고 있었다. 또한 나는 이 찢김, 이 아픔이 전연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조금도 새로워질 리가 없을 테니까.

누가 뭐래도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전전공공 전쟁을 기다리며 하루 한 번 한쪽이 달아난 검은 지붕을 경건하게 우러르며, 어머니를 미워하고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 일에서 결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178)

군인이었던 사촌 오빠와 큰아버지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전 상태로 복귀하였고, 죽은 오빠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이경과 이경의 어머니를 돌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촌 오빠는 반죽음 상태로 살아가는 모녀가 폐허처럼 변한 고가에서 나와 ‘회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권한다. 위 인용문은 이경을 설득하러 온 사촌오빠의 말을 들으며 오빠의 말을 부정하는 이경의 내면심리다.

이경은 “매일 전쟁이 금세 덜미를 쳐올 듯한 공포와, 전쟁이 어서 밀려오고 밀려가며 사람들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열면 바람에 찢기며 피난 집을 썼다 풀었다”하는 모순적인 자의식만 남은 찢긴 자아로 살아가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

13) 박완서는 폐허가 된 이 ‘고가’의 모습을 인상적인 ‘집’으로 기억하며, 스무 살의 여성인 주인공에게 치명적 상처가 되었던 전쟁의 폭력을 상징하는 실물적 형상을 의미한다고 작가 스스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 이지러진 모습과 그 때의 충격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힘들 겪는 여주인공의 상처 받은 마음의 풍경을 동일시했어요.” 박완서, 『예술사 구술 총서: 박완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수류산방, 2012, 307쪽.

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삶의 희망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전쟁상태적 신체”<sup>14)</sup>를 앓고 있다. 박완서가 가장 아끼는 소설이라고 말하는 『나목』은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병적 상태의 이경을 통해, 한국전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체적 감각반응으로 실물화된 ‘증상들’로 실재함을 드러낸다. 두서없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열적인 찢긴 자아의 내면상태로 회복에 저항하는 것이다. 죽음을 안고 있는 몸과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후의 현실 사이에서 ‘찢긴 자아’, 이것이 『나목』의 전쟁경험이다.

‘회복’의 문제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를 해소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논의되어 개념화된 바 있다.<sup>15)</sup> 그렇지만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가해자의 언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논쟁 중인 개념이다. 친절한 의도로 제안되는 해결 방안이지만, 주로 가해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회복’은 폭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묘함’이 작동한다. 교묘함의 논리는 선과 악으로 구별되기 어려운 삶의 껍속이나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인해 폭력의 가해구조를 자연화하고, 선과 악, 또는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경계를 흐리거나 겹쳐지도록 만들어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sup>16)</sup> 이런 교묘성

14)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의 탄생, 혹은 점령당한 영혼에 관한 보고서」, 『나목』, 세계사, 2012, 17쪽 참조.

15) 장원석,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정치와평론』 21, 한국정치평론학회, 2017.12 참조.

16) 박완서 소설의 삼화적 구성은 이 ‘교묘함’의 논리가 작동하는 삶의 속성을 형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완서 소설 「꽃을 찾아서」(1986)의 서술자는 기억과 기억이 얽히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절적으로 타인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삶은 복합적 구성물이 된다는 것을 자각한다. 갈피갈피 헤아려보려고 해도 분류가 안되는 상태.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헤메이는 상태. 그 복합성과 얽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는 자아. 이런 삶의 문제로서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고, 한국전쟁의 기원적 의미를 파헤친다. 당연히 이 자의식적 과정은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찾아서 맞

은 구체적인 삶의 순간들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윤리적 태도들의 부딪힘들과 억압이 얽혀있기에, 문학예술적 주제로 사유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sup>17)</sup> 예컨대 학살 사건의 참혹함이나 억압이 어느 사건보다도 강렬했고, 학살의 당사자 권력이 장기집권함으로써 사실의 조작이나 억압의 폭력성이 극대화되었던 사건인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실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집요한 방식으로 회복담론이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들에서 회복담론은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상식적 관념으로 등장한다.<sup>18)</sup>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홀로코스트의 폭력을 증언했던 프리모 레비나 1970년대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프리모 레비의 생애 연구자

---

취나가는 과정처럼 표현된다. 이를 지리적 개념으로 연구한 권영빈,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 박완서의 꽃을 찾아서(1986)를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9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9)을 참조.

- 17) 폭력 사건 속의 가해/피해의 문제를 사유하는 소설과 영화에서 이 문제는 가장 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세월호 사건을 다룬 독립영화인 <너와 나> (2023)는 회복을 대안으로 삼기 위해 취해야하는 발전적 시간 관념을 뒤흔들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회복의 사유에 기반한 발전론적 가치관을 비판한다.
- 18) 폭력과 고통을 인간의 문제로서 사유하고자 한다는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기 전인 2011년에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을 발표한다. “회복이라는 말에는 결별과 배반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회복되기 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이니까요”(김연수, 「사랑이 아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2017.여름, 317쪽)라고 말하며, ‘회복’에 내재된 교묘함의 논리를 비판하고, 소설의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고통을 겪는 인간에게 회복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음을 『소년이 온다』의 “일곱 개의 뺨”에 등장하는 은숙을 통해 이야기한다. 은숙은 광주항쟁 이후 그 날의 학살과 그 피해의 감각이 전혀 둔화되거나 아물지 않은 시기에 광주도청 앞 분수대의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제발 물을 잠가”달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도청 직원은 “그만 전화해요, 학생. 학생 같은데 맞지요.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제 공부를 해요.”라고 말한다. 은숙은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그 상처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잊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라고 말한다. 한강, 『소년이 온다』, 창작과비평사, 2014, 97쪽 참조.

인 서경식의 ‘극복’에 관한 사유 역시 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폭력의 가해/피해 관계에서 회복(극복) 담론이 폭력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성찰한다.

이 ‘필리’들은 한목소리로 ‘공생’을 위해서는 서로 ‘원한’(ressentiment)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온화한 어조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미리 자신들을 ‘원한’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감정을 초월한 이성의 높은 위치에 두고, 어느새 이쪽의 위치에 저급한, 보복 감정을 지닌,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레테르를 붙인다. 나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원한을 품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는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라는 말이 어쩐지 수상쩍기만 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실제 ‘증오’의 원인이 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은근한 어조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강요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도 또한 ‘앞을 향해(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진지하게 충고한다. 도대체 어느 쪽이 ‘앞’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는 바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 자신들이며 낡은 것은 내 쪽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새롭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동의어며, 그것이야말로 ‘정의’보다 우선하는 척도인 것이다.<sup>19)</sup>

회복이나 극복을 말하는 가해자의 입장을 해석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서경식의 말이다.<sup>20)</sup> 원한을 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경제적인

19) 서경식, 『시대의 증언자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 창비, 2006, 208쪽.

20) 서경식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가 모어인 재일조선인 2세 작가다. 1970년대 초반에 두 형이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생생활 하던 중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생활을 했다. 사상전향을 강요하던 1970년대 사상범 처리와 관련된 법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서경식은 고등학생으로 혼자 일본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형들의 감옥생활과 잔혹한 고문 후유증을 가족으로서 지켜보았다. 형들의 선택과 고통을 지켜보며, 인간의 폭력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를 연구하고, 행적을 따라 기행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부흥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신념과 통한다고 말하는 회복 담론을 비판한다. 즉 폭력이 그에 대한 복수로서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회복이 당연한 절차로 이해되지만, 이는 가해자의 자리에서 폭력의 과거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깝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각으로 기억하는 피해자들에게 화해의 방식으로 제안된 가해자 편의 회복(극복) 논리는 공권력의 폭력과 피해를 축소하고 망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논리와 통한다. 그리고 이 회복(극복)은 광주의 학살 피해자들에게, 또 한국전쟁의 민간인 학살과 점령지의 폭격 피해자들에게, 세월호 같은 국가적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화해의 포즈로서 취해진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

『나목』에서 이경이 고통과 슬픔을 수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손내미는 사촌 오빠에게 울부짖는 심정으로 “찢긴” 상태라고 고백하는 과정은 바로 이 ‘회복(극복)’ 담론에 대한 저항과 같다. “전쟁상태적 신체”라는 자기인식과 찢긴 자아의 ‘치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기고백은 회복 담론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후, 청춘의 기록이나 성장서사 정도로 평가되던<sup>21)</sup> 『나목』은 2011년 “전쟁상태적 신체”의 서사로 해석되면서 폭력을 신체적 감각으로 실물화하는 전쟁 문학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22)</sup> 그리고 이런 해석은 학살을 비롯한 (전쟁)폭력의 피해를 과

21) 『나목』은 발표 당시 청춘의 방향과 저항, 혹은 변덕스러운 성장기 감성 등, 전쟁기 청춘의 성장서사로 해석되었지만, 오히려 생생한 현장의 실상을 감각화한 전쟁문학으로 평가될 작품이다. 성장 서사로 해석한 연구로는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삶」, 『나목』, 민음사, 1981,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한 <살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참조.

22) 전쟁의 경험을 몸의 감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몸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현재적 사건이다. “전쟁 상태적 신체”는 기억의 물질성과 현재성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나목』은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고,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나목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무섭증”에 관한 이야기며, 작가의 자전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상태적 신체라는 열전과 냉전 사이에 발생한 어떤 신체의 상태(state)에 관한 ‘증

거사로 덮고서 치유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기를 제안하는 해결담론이 가해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논리임을 사유할 수 있게 한다.<sup>23)</sup> 『나목』은 폭력 경험의 신체상태에서 치유나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계속 앓고 있는 피해의 현장으로서 신체를 재현함으로써, 폭력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도록 추동하는 권력의 논리를 드러내고 비판한다고 해석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쟁상태적 신체’라는 해석은 2010년 이후에 담론화된 연구 관점이다. 대부분의 전쟁 폭력과 학살의 문학적 재현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증언적 서사는 가장 일반적인 전쟁(폭력) 문학적 특성이다. 즉 ‘사실’을 구성하는 객관적 자료와 실증적 사실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증언문학은 객관적 사실의 서사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쟁상태적 신체’라는 감각 경험과, 회복담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피해자 논리는 폭력(학살) 서사의 일반적 특성에서 벗어난 듯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sup>24)</sup> 『나목』 역시 전쟁을 다루고 있으나 증언과 연결되지 않는 서사적 특성

언’이다.”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의 탄생, 혹은 점령당한 영혼에 관한 보고서」, 『나목』, 세계사, 2012, 17쪽 참조.

- 23) 피해자의 고통을 타자화하고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고통받는 피해자의 개별성을 제거하고 추상적인 ‘우리’로 호명함으로써, 고통을 없애고 권력의 편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감정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감정론의 한 양상과 연관지어 논할 수 있다. 사라 아메드,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참조, 권명아, 「전쟁 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논총』 5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7.
- 24) 전쟁의 피해로서 학살이나 폭력의 경험이 문학적으로 재현되는 문제는 증언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은 권력의 작용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때 폭력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문학적 재현, 혹은 소설화 문제 등이 중요한 ‘사실’ 공론화 과정으로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은 사실 기록이나 증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학과 윤리 등의 매개항을 고려하는 이론적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문학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증언 문학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오랜 세월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 폭력이 진실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전쟁의 폭력 경험과 문학적 재현의 문제 역시 증언과 문학 사이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상당하다.

때문에 청춘의 성장서사로 해석되고, 별달리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박완서 문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민간인 학살이나 과거사 연구를 비롯하여 감정 정치나 정동 연구, 페미니즘을 비롯한 소수자 연구 등, 학술담론장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구성된 해석의 관점으로 평가될 부분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 한국사회의 계급적, 혹은 이념적 개방성을 거쳐, 2000년대 국가정책적으로 시도된 과거사 진상규명의 기운 등, 복합적 매개항들이 얽혀 가능해진 해석의 논리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폭력과 같은 과거사가 은폐되었던 전체주의적 독재권력의 과잉 통치 시대에 ‘증언’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지만, 사실규명이 더 이상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지 않는 사회에서 ‘문학적 증언’의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논의는 폭력 서사 재현 문제에 전환점을 제공한다.<sup>25)</sup> 폭력이나 학살 서사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재론적 윤리로 초월하는 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선”<sup>26)</sup>이라는 논리적 진전은 『나목』 해석에도 영향을 끼친 2010년 이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문학론에서 나아가 감각적인 것으로서의 문학의 자리, 또는 윤리적 주체 구성을 향한 성찰적 서사라는 문학론은 사실을 밝혀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의 전쟁(폭력) 서사론을 전망할 여지를 만든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학술적 담론화를 거치면서 『나목』은 2000년대 이후 전쟁인식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2010년대에 새롭게 전쟁문학으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 『나목』의 해석은 2010년대 사회에서 이루어진 ‘발견’인 셈이다.

25) 2014년에 출간된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폭력의 문학적 재현과 관련하여 증언과 미학의 관계를 논의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의진, 「문학적 픽션과 공동체의 정치학, 한강의 『소년이 온다』, 『비교한국학』 27-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12 참조.

26) 한국사회 학살 서사 논의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사유한다. 김명훈, 「‘학살은 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사화하기: 1980년대 후반 소설의 정치적 무의식과 ‘거창 사건」, 『동악어문학』 79, 동악어문학회, 2019.10.

오랫동안 연구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작품의 의미도 논의되지 않은 채, 전쟁기 청년들의 성장 서사로 해석되었던 『나목』은 2000년대적 전쟁 연구의 진전과 사회담론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21세기의 인문학적 학술담론장에서 해석되었다.<sup>27)</sup> 2010년대 『나목』의 해석은 박완서 소설과 박완서 문학 연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거사 진상규명, 사회적 기억과 담론 정치, 정동 연구 등의 학술담론장과의 길항관계를 형성하며 같이 진화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3. 1990년대 한국사회, 박완서는 전쟁경험을 ‘사실’대로 말한다 - ‘기억/망각’의 서사에서 ‘복원’의 서사까지

#### 1) 1970-80년대: 기억 서사와 기억/망각의 정치

『나목』 이후 1970년대에 발표된 박완서의 단편소설에서 전쟁의 경험은 좌익혐의자나 부역혐의자에게 가해진 학살의 경험으로 재현되며, 전쟁의 폭력에서 연유한 고통이 지속되는 일상으로 냉전 사회의 삶이 문제적으로 다루어진다. 1970년대 소설들은 『나목』의 이경에게 각인된 신체증상이나 방황과는 다른 식으로 전쟁경험을 재현하는 것이다. 일상적 삶을 구조화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원으로서 전쟁, 즉 정치적 길들임

27) 2011년 권명아의 『나목』 해설 이후, 권명아, 「전쟁 상대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논총』 5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7,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미, 『박완서 문학의 ‘저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권영빈, 『박완서 소설의 젠더지리학적 고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로 이어지며, 전쟁상태적 신체성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 망각을 강요하는 ‘회복’ 논리에 내재된 권력의 폭력성과 전쟁상태적 신체를 앓고 있는 현실 사이의 분열성에 주목하는 『나목』 해석이 이어진다.

의 장치를 꿰뚫어 속물적 인간심리의 기원을 찾듯이 냉전의 정치를 사유하는 방식이다.

단편소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2),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워커」(1975), 「겨울나들이」(1975), 「더위먹은 버스」(1977)<sup>28)</sup>,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등은 전쟁 이후 금지된 것으로서 ‘빨갱이’와 연관된 가족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구조에서 이 편이기도 하고 저 편이기도 한 삶의 상황, 밀고 밀리는 전쟁 상황에서 전선이 곧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점령지 사람들의 일상으로서 전쟁의 경험을 다룬다. 이웃이 서로 고발하고 적이 되는 상황, 부역자는 살아남기 위해 밀고자가 되는 전쟁 경험 등은 생활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경험으로서 서사화된 다.<sup>29)</sup>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경험은 전투의 현장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경험이기보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으로 드러난다. 이는 전쟁의 경험이 냉전의 경험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전쟁 이후 사회가 전쟁경험(기억)을 매개로 통치되는 사회임을 문제시하는 방식이다.<sup>30)</sup> 박완서 소설에서 부역(‘협의’)자

28) 「더위먹은 버스」는 1977년 『세대』지에 「돌아온 땅」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1978년 『배반의 여름』(창작과비평사) 단행본에 「더위 먹은 버스」로 개명되어 실린다. 이후 다시 단행본에 실리면서 다시 「돌아온 땅」으로 발간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논문의 논지에는 「더위 먹은 버스」가 더 맞다고 판단하여 「더위 먹은 버스」로 인용한다.

29) 이선미, 「‘부역(협의)자’ 서사와 냉전의 마음」,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4 참조.

30) 2011년 이후 1970년대 박완서 소설 연구에서 두드러진 관점은 1970년대 근대화를 전쟁의 경험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1)」,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신선헌,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생존 경쟁과 주권 권력」, 『인문학연구』 6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2 참조.

는 전쟁의 경험을 빌미로 냉전의 통치를 유지하는 냉전사회의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된다.

요컨대, 박완서의 1970년대 단편소설들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조, 즉 냉전사회에서 좌익혐의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속내와 일상의 껍속을 파헤치는 듯한 소설들이다. 이 속내와 일상을 파헤치는 단편소설들은 『휘청거리는 오후』의 문학적 후광을 받으며 박완서를 1970년대 작가로 안착시킨다.<sup>31)</sup> 전쟁경험은 후경화되고, 전쟁을 명분으로 삼는 정치적 프레임의 작동과 그 통치에 길들여져 순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풍경이 압도하는 당대적 문학이다. 물신적 소비주의에 잠식된 속물들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성장과 건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발전주의 한국사회를 돌파하는 인간상으로 표현된다.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들은 한국전쟁의 복합적 기억을 숨기거나 조작하여 살아남은 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의 실상을 담고 있다.<sup>32)</sup>

1981년에 발표된 「엄마의 말뚝2」는 인간힘쓰며 성장의 주체가 되어 1970년대적 한국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오지’<sup>33)</sup>가 폭발물 터지듯이 솟

31) 1990년대까지 박완서는 1970년대 소설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경은 이런 문학사적 분류에는 남성비평의 관점이 작동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하며, 박완서는 두 편의 자전소설을 발표한 1990년대에 가장 동시대와 관계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박완서를 1990년대 작가로 분류한다.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참조.

32) 이선미, 「속물(지배)사회, 허위의식, 말뚝의 총질 -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허위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94, 한국문학회, 2023.8 참조.

33) ‘오지’는 박완서 소설에서 억압된 자아를 통칭하기 위해 여러 번 언급되는 말인데, 마음 속에 꽂꽂 숨겨둔 말 못할 사연이기보다는 주로 전쟁경험의 한 양상과 관련된다. “그 구멍을 메운 새살은 울케와 나의 춤고 외롭고 남구하고 공포스러운 북행길의 그 칠혹 같은 어둠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어찌 그 어둠, 그 추위, 그 막막함을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안 깊은 오지에 오빠의 상처보다 훨씬 흉악하고 어두운 상처가 되어 서리서리 파리 틀고 있을 것이”(박완서, 『그 산이

구쳐 공개되어버린 사건처럼, 전쟁 피해의 당사자인 엄마가 품고있던 기억의 실체가 섬망 증상으로 분출한 자전적 일화를 소재로 한국전쟁 경험을 서사화한다. 소시민적 일상을 영위하는 평범한 한 가정의 사사로운 일상풍경이 장황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전쟁의 기억은 급반전의 극적 사건으로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며 돌출적으로 등장한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어머니는 수술 후 섬망 증상 속에서 한국전쟁기에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순간을 기억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이다. 전쟁경험은 어머니의 마음 속 ‘오지’에 숨겨진 기억이며, 신체의 감각적 증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사고 같은 극적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무의식이 ‘광기’로 폭발함으로써 딸은 1981년에 전쟁을 다시 경험한다.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변신이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의 인품이기에 더욱더 국민을 듣기 좋은 말로 달래 적 치하에 팽개치고 저희끼리 뺑소니친 꼴이 된 정부에 대한 원망도 컸다. 원망과 불신, 불안, 그리고 고독으로 그는 날로 정신이 망가져 갔다. 이런 그가 이웃의 고발로 기습을 당해서 끌려가는 걸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전혀 예상을 빚나간 것이었다.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당장 목숨을 잃었거나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인민총궐기대회에서 제일 먼저 의용군에 지원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감격해서 동조케 했다는 소식이었다. 남은 식구들은 그저 그렇다니 그렇게 알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농간이 그의 운명을 희롱하고 있는지 알아볼 도리는 없었다.

실상 운명의 희롱은 가족도 당하고 있었다. 전향자라고 지목해서 따돌리고 고발까지 한 이웃은 적치하에서 대단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돌변해서 우리 식구들의 보호자 노릇을 해주었다. 초기엔 그렇지도 않았지만 나중판으로 접어들수록 청장년이 있는 집치고 의용군으로 빼앗기지 않은 집 없다고 할 만큼 수탈이 극심해져서 의용군 나갔다는 게

---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117쪽)라는 식으로 ‘오지’를 쓴다. 박완서는 오빠의 죽음과 더불어 “칠후 같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전쟁의 상처 그 자체를 ‘오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등 특별대우받을 만한 일이 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이다 뭐다 해서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받고보니 그 세력 부리는 이웃의 귀뽕이 동인민위원회까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망설이거나 취사선택할 경황도 기력도 없었다. 망연자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sup>34)</sup>

어머니가 마음의 ‘오지’에 묻어버리고서 잊고 살아온 전쟁기 오빠와 관련된 삶의 상황이 인용문에 요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빠는 인민군이 점령하기 전 서울에서 전향자로 살았다. 그런 중에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전향자로 지탄받으며 끌려가 의용군에 자원입대했다. 의용군에 자원입대했다는 사실 덕에 남은 가족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으며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만 석 달 만에 세상이 바뀌”고 오빠는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웃 인심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 처지가 된다. “그들(이웃들)이 겪은 석 달 동안의 고초를 위한 복수의 표적이 되어 어떤 재앙이 떨어지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살던 중, 또다시 전세가 기울어 군군이 후퇴하기 시작하고, 엄마는 며느리와 손자를 친정으로 피난시키고 의용군에 나갔다는 아들을 기다리며 딸과 함께 서울에 남는다. 그러던 중 “속속들이 망가져”서 피해망상으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흉한 물골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자신을 보호할 생각만 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귀환한 아들은 어느 편으로도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세 식구는 오롯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또다시 바뀐 세상을 살아내야 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처음 말뚝을 내렸던 현저동 산동네로 숨어들 듯이 살다가, 다시 인민군의 퇴각이 있던 무렵 아들은 인민군의 총에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전향자의 신세로 전쟁을 맞이하여, 지조 없이 자기 신념을 바꾸고 또 바꾸며 망가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34)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2, 133-134쪽.

고스란히 지켜보다가 결국엔 죽어가는 과정을 무참하게 목격했던 어머니는 이편 저편이 순식간에 바뀌는 전쟁을 견뎌내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지닌 자로 살아남는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이 가족들의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이편을 들다가 또 저편으로 옮겨가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이편에게도 저편에게도 적이 되고 마는 “운명의 회룡” 같은 삶의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압력과 휩쓸림 같은 무력한 과정을 비열한 자의식의 상태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 후의 삶은 참담했고, 딸은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sup>35)</sup> 아들(오빠)의 죽음을 없는 것처럼 잊고서만 살 수 있었다. 망각은 전향자(변절자) 가족으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전후의 한국사회에서 생존의 조건과도 같은 처신의 방법이었다.

『엄마의 말뚝2』의 어머니가 수술 후 일으키는 광기에 가까운 발작 증세는 순전히 살아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 검열하고 망각했던 전쟁의 경험이 망각의 몸을 뚫고 폭발한 사건으로, 전쟁경험을 압축한 기억의 표출이다. 갑자기 분출한 이 기억은 기억하면 안 되는 경험이며, 정치적, 사회적 통제에 의해 제한된 금기에 해당한다. 기억하여 말할 수 없고, 사회적 담론장에 놓여질 수 없는 전쟁의 경험이다. 어머니의 몸 안에 숨겨진 채 잊혀진 전쟁의 경험은 어머니의 몸으로서만 남아있었다. 봉인되었기에 경험한 자의 몸으로만 존재하는 좌익 혐의자의 죽음과 같은 한국 전쟁의 ‘사실’은, 1981년의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발작적 증상으로 실물화된다. 『엄마의 말뚝2』는 ‘기억하는 신체’(『나목』)라는 전쟁경험 서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억을 망각하게 하는 전쟁경험 통제와 처벌의 사회를 재현하는 서사로 1981년의 한국사회를 실물화한다.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는 1981년에 새롭게 갱신된 것이다.

35) 박완서, 『엄마의 말뚝2』, 144쪽.

198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 자기분열과 정체성 형성의 수수께끼처럼 등장하는 ‘침묵’이나 ‘망각’은 기억 정치를 내면화하는 1980년대적 자아의 자의식과 관련된 소설적 장치들이며, 트라우마적 증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텐데,<sup>36)</sup> 『엄마의 말뚝2』는 그 시작점이 되는 소설이다. 이 망각의 상황으로 이루어진 기억 서사는 1970-80년대적인 냉전사회를 반영한 전쟁경험의 서사적 재현이라 할 수 있으며, 망각의 방식으로 봉인해 버린 기억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전쟁 인식의 표현이다. 이 기억/망각의 서사는 망각으로 지우고자 했던 고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직면하는 것만이 전쟁상태적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임을 공론화하는 소설적 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이제는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분단은 오래 전에 피흘리기를 멈추고 굳은 딱지가 되었고, 통일을 꿈꾸지 않은 지도 오래입니다. 통일이란 말은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산 채로 분단된 자의 애절한 꿈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호로서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 직업인 사람은 될 수 있는데도 많은 구호를 만들어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되겠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흘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토막난 채 아물어버리면 다시는 이을 수 없게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sup>37)</sup>

36) 1981년 박완서는 『엄마의 말뚝2』를 통해서 인간의 ‘오지’라는 표현을 쓰며 기억할 수 없는 사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차용된 ‘망각’을 소설적 상황으로 제안한다. 그 후 1980년대 소설들에서 망각의 형태로서 무의식에 관한 탐구나 침묵 또는 실어의 방식으로 망각을 행위로 재현하기도 한다. 인간의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는 상태로서 무의식이나, 망각, 의도적 행위로서 침묵이나 실어는 모두 드러내지 못하는 ‘사실’과 관련된 삶의 부분이다. 유독 1980년대 소설에서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구성한다. 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억 정치’의 정치적 효과가 더 절실했던 시대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침묵과 실어』, 『유실』, 『무중』, 『아저씨의 훈장』 등의 단편소설에서 이런 비유적 상황을 억압의 정치와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37) 박완서, 『1981년 11월 제5회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엄마의 말뚝』, 세계사,

「엄마의 말뚝2」으로 이상문학상을 타고서 남긴 수상 소감의 한 대목이다. 분단된 채 냉전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미래의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는 결국 분단을 영속화하는 반(反)통일의 논리라고 호소하며, 망각하도록 강요된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는 것만이 탈분단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1981년 「엄마의 말뚝2」의 기억 서사는 ‘망각’을 공론화함으로써만 전쟁의 경험을 사실대로 전달한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이다.

이후 1980년대 소설의 전쟁경험 재현의 서사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망각의 문제에 접근한다. 폭력적인 전쟁경험을 ‘망각’으로 묻어두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복합적인 내면심리를 다루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대표적이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의 근대화 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중산층적 이상 실현을 위해 전쟁의 고통을 부정하는 개발주의적 근대화를 주제화 한 작품이다. 전쟁의 폭력에 편승하여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소시민적 중산층의 ‘망각’된 기억을 끄집어내어 1980년대 한국사회의 ‘정상성’의 이면을 다루며, 한국사회의 경제발전과 중산층의 형성이 전쟁의 폭력과 고통을 망각함으로써 가능했음을 파헤쳐내는 듯이 분석한다. 1980년대 ‘망각’은 한국전쟁과 1970년대의 ‘조국 근대화’론이나 경제발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항이다. 박완서 소설은 이 매개적 상황을 1980년대 한국사회로서 재현한다.<sup>38)</sup> 전쟁경험을 다루지는 않지만, 전쟁경험이 배경화되는 방식으로 1970-80년대 사회와 삶을 재현한다.

## 2) 1990년대: ‘사실 그대로’의 복원 서사와 문학의 윤리

1987년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는

2012.

38) ‘망각’은 1980년대를 재현하는 소설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1980년대와 박완서 소설의 형식적 특성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각주36) 참조.

또다시 반복되는데, 1987년 이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잣대처럼 민주화라는 사회변화가 어디까지인지를 재단하는 식으로 전쟁경험이 다루어진다. 1992년에 발표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1995년에 발표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자전소설 2편을 들 수 있다. 작가도 글로 쓴 자화상이라고 명명하였듯이, 이미 「엄마의 말뚝1, 2」에서 다루었던 어린 시절 개성을 떠나 서울 현저동에 정착하던 시기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겪었던 시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한 소설이다.

「엄마의 말뚝1, 2」가 서술자아와 경험적 자아를 분리시켜 과거를 기억하는 서술 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90년대에 발표된 자전소설들은 서술의 시점, 즉 서술자가 기억하는 시점을 그다지 명시적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전지적 서술자가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이야기체의 서술로 서술시점과 경험의 시점을 구분하면서도 서술의 상황을 달리 설정하지 않고 과거 사실에만 집중되도록 한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이야기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이전의 어떤 소설보다도 더 자전적인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 이전의 전쟁경험 재현의 소설들이 취했던 기억 서사의 방법론을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사적인 세부들을 총망라하여 시공성을 지닌 실제 세계를 구축하듯이 실물화한다.<sup>39)</sup>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사라지면서 분단 이후 냉전의 통치질서와 제도, 규범을 내면화했던 일상적인 문화 전반의 변화를 겪는다.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변화는 들자면, 월북작가 해금 조치라든가 사회주의적 이념과 관련한 담론들에 대한 통제나 검열의 구조가 점차 해소되는 해빙의 분위기다. 박완서는 1987년의 민주화, 혹은 그 이후의 이행기 정의 국면이라는 정치적 변화의 실체를 탐색하면서 자전소

39) 자전소설 두 편의 형식적 특성이나 서술방식은 그 자체로 주제로 수렴되는 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선미의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앞의 글)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설을 예비한다. 1989년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와 1991년의 「엄마의 말뚝」<sup>3)</sup>에서 새롭게 맞닥뜨린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국면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재편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따진다.<sup>40)</sup>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삶 전반의 정치적 금기와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느슨해지고, 문화와 의식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된다. 민주적인 법과 제도가 일상의 문화를 비롯하여 세밀한 삶의 면면들을 재편하고 조율한다. 지배권력의 성격이 바뀌는 속도보다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상식적 관념 등이 빠르게 변한다. 박완서는 이 사회변화부터 세밀하게 살펴보는 듯한 소설을 먼저 발표한다.

87년 이후의 사회는 “6.29 전에는 꿈도 못 꿀 책이 쏟아져나와 서로 베스트셀러를 다투고 있었고, 해금된 과거의 금서 뿐 아니라, 북쪽의 이념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그쪽 본바닥 소설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고, 진실이 매몰된 사건들을 파헤치고 복원하고 고발한 소설이나 논픽션의 출판도 더욱 활발해진”다. “오공과 유신 시대를 풍자한 콩트들은 어찌나 신랄하고 재미가 있는지 서서 몇 페이지만 읽고도 포복절도를 할 지경”<sup>41)</sup>으로 이전에 일상적으로 짓눌려왔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검열이 모두 거둬진 듯 정치적 자유를 실감하는 세상으로 돌변했다. “망각을 강요당한 사건”들을 더 이상 망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전쟁기에 경험했던 폭력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행된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 시기의 국가폭력의 피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 폭력적 권력의 주체를 처벌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걸맞게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의 주인공이며 서술자인 작가 ‘나’는 수기공모전 심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복원”이라는 수기를 계기로 이 급변한 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예견한다. 그러나 한편, 87년의 민주화는 곧바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치

40) 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 - 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허학보』 64, 상허학회, 2022.2 참조.

41)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저문날의 삽화』, 문학과지성사, 189쪽.

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보편 관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소설의 서술자인 작가는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부분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일상을 지나면서 ‘변화’에 대해 성찰한다. 87년 이전 사회란 어떤 사회였는가? 그 시간이 구축한 일상과 관습, 문화적 습성 등은 ‘민주화’라는 제도적 변화로 순식간에 청산되는 것인가 등, 민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1970-80년대 전쟁경험 재현의 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의 어떤 경험을 망각으로 봉인함으로써 냉전 통치의 기나긴 세월 동안 전쟁의 폭력을 은폐하거나 미화하고서 냉전 시대의 권력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자장 안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보통사람들은 그 권력에 공모한 ‘시간’으로 자기자신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1970-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권력의 이해관계에 공모했던 생활의 구조를 인정하며 여러 지층의 겹으로 얽혀있는 거짓 사실들과 연결되고, 그런 위선적 사실들과 얽혀진 기억의 지층으로 켜켜이 쌓여가는 ‘기억’의 복잡성을 발견한다.<sup>42)</sup> 자전 소설 2편을 발표하기 전인 19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탐색한 현실진단이며, 1989-91년 사이에 발표된 박완서 소설이 다루는 당대적 현실이다.

예컨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총살당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납북되어 생사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듯이 잘 못 알려져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형무소에서 그 선생님과 같이 수감되었던

42) 고대 유적지처럼 몇 세기의 시차로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한 공간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경우를 통해 상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건축물이 지어지더라도 덧칠하고 이어지는 방식으로 한 덩어리로 공간을 채우는 물질을 구성할 때, 이 건축물들은 건축시기의 맥락과 함께 그 기원의 모습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 공간을 채우는 건축물들은 덩어리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질학에서 ‘지층’ 형성 과정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른 시점의 ‘기억/망각’의 교차와 얽힘으로 어우러져 기억되는 한 덩어리의 과거는 시점을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친구를 찾아가 사실 증언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이 좌익혐의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실 자체를 아무에게 알리지 못하고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기에, 같이 수감되었던 선생님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증언을 거부한다.<sup>43)</sup> 이미 사실과는 다른 사실들이 사실로 둔갑하여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실들이 쌓여 기억(자의식)이 구성되었기에,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과 서로 얽혀있는 몇 단계의 거짓을 규명하여야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자조적으로 확인한다. 40년이 넘도록 분단과 냉전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모할 수도 있는 삶의 상황임을 의미한다. 서술자는 큰 깨달음을 얻듯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들이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한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억을 부정하고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이미 최선이 아닌 세상이 된 것이다.

하나의 부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 차지한 몫뿐 아니라 그 자신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분담한 몫까지를 동정도 과장도 없이 정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혼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만큼 하고 태산 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하고도 달랐다.

43)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 등장하는 주인공 친구와 관련된 일화이다. 인민군이 점령했던 기간동안 부역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친구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없었던 듯이 살아왔기에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일을 들춰내는 친구를 벌레를 보듯이 박멸하게 털어내려고 애를 쓴다. ‘빨갱이’와 관련된 과거사나 그에 얽히는 일들도 모두 없었던 일로 덮고서 살아왔기에, 그 거짓 위에 구축된 사실들은 이미 거짓과 사실이 구분되기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런 깨달음들은 ‘망각의 정치’에 맞서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과거의 폭력 피해자들을 모두 무색하게 하는 삶의 변화들이다.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저문 날의 삽화』, 문학과학성사, 1991, 198-199쪽.

그가 수기의 제목을 「복원」이라고 붙인 건 참으로 적절했다. 깨진 간장종지 하나를 복원시키려도 더도 말고 그 파편들을 잃지도 보태지도 말고 고스란히 주워모아야 하듯이 섬세한 부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가 제자리를 찾아맞춘 그의 기억력은 감탄할 만했다. 십수 년의 세월과 그의 연령으로 미루어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권력과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찰떡같이 맞물리면서 부정을 모의하게 된 경위 뿐 아니라,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이 여실하면서도 그 꼼꼼한 기록성 때문에 그 동안도 그가 깨어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야말로 그 수기의 마지막 진가였다.<sup>44)</sup>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는 이제 한국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전쟁 정치의 실상으로서 기억/망각의 신체 증상, 또는 기억/망각했던 과거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기억하는 시점의 냉전 반공주의를 폭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권력을 얻거나 그 편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를 조작한 사실까지 자기고발 하듯이 기억해야 할 만큼, 기억의 문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의식의 심연을 갖게되었다. “권력과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찰떡같이 맞물리면서 부정을 모의하게 된 경위 뿐 아니라,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까지, 즉 자기자신의 공모 행위까지 여실하면서도 꼼꼼하게 “복원”해야 과거의 ‘사실’이 완성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발표된 두 편의 자전소설은 기억/망각의 방법을 넘어 ‘복원’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원은 기억/망각과는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져 있다.

기억/망각의 서사는 전쟁경험을 향한 증언적 자의식과 관련되며, 망각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배어있는 ‘처벌의 공포’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비장함의 서사적 태도에서 기원한다. 반면, ‘복원’의 서사는 냉전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압적 트라우마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망각을 취사선

44) 박완서, 위의 책, 183쪽.

택해버리기도 했던 시대를 자각하며 과거를 재현하는 방법론이다. “‘망각의 강요’도 ‘안간힘 쓴 기억’도 똑같이 의미없어지는 현실에서 참담함”<sup>45)</sup>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증명의 서사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어렵사리 이끌어오던 민주화운동을 통과하면서 87년 이후의 민주화에 도달했지만 전지구적 상황은 이미 모든 것이 자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안간힘이 무색해져버린 복합적 삶의 상황이었다. 강요된 망각을 온 힘을 다해 광기를 폭발시키듯이 기억하는 방식의 기억/망각 서사는 과거의 유물처럼 구경거리, 즉 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sup>46)</sup> 일반화된 사회가 되었다. 이제 ‘망각’은 「엄마의 말뚝2」에서처럼 처절한 억압과 트라우마의 증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살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위장하고 변신시킨 자발적 선택 같은 ‘처세’이기도 한 시대가 도달한 것이다. 이 망각의 시간들이 쌓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킨다. 이제 기억은 사실과 꾸며진 사실들의 뒤엎힘이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버젓한 국민으로 인정받고 살 수만 있다면’의 논리가 가장 최선이라는 자의식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1989년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서 발견해 낸 민주화 이후 세대의 망각법에 따르면, 자화상을 그리듯이 한 개인이 경험한 모든 삶의 세부들을 꼼꼼히 재구성하는 듯한 자전소설 두 편은 ‘복원’을 위한 1990년대식 전쟁경험 재현의 서사다. “그 산”이 있었는지조차 상관하지 않기에, “그 산”이 내포하는 상징을 기억/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

45)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앞의 책, 239쪽.

46) 「엄마의 말뚝3」에서 서술자의 조카들은 북쪽 개성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고모에게 쇼부리는 것은 그만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게 된<sup>47)</sup> 1990년대에 대한 응답처럼, 박완서의 자전소설 두 편은 전쟁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최후의 도전인 듯이 야심차게 꼼꼼히 기억하며 혹독하고 잔인한 전쟁경험을 송두리째 펼쳐낸다. 세세한 일상의 면면들까지도 풍속사적 기록물처럼, 또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경험도 있다는 듯이, 장황하고, 기발하게, 또는 우스꽝스럽게 생활사실들을 중심으로 식민지와 전쟁기를 한 세계로 실물화하여 재현한다.

엄마와 숙모들은 할아버지의 장서를 뜯어 그릇을 만들면서 걸쭉한 농담을 곁들이며 할아버지를 우스꽝스러운 노친네로 만들며 뒷담화하고, 고향 집의 변소를 놀이터로 묘사하는 반전의 서술로 웃음을 유발하고, 소낙비를 마치 자연의 장관을 음미하는 듯한 감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을 아름다운 유년의 풍경으로 보여준다. 창씨개명이나 일본소설에 탐독하던 식민지의 경험은 친일/반일의 역사적 논쟁을 일으킬 만큼 정치성을 지닌 심각한 일화임에도 무심하게 옛날 이야기처럼 전달한다.<sup>48)</sup> “따뜻하고 합리적인 공산주의자도, 무자비한 공산주의자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경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 안일만 탐하는 관리도, 전쟁 중에도 공산주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공산주의자도, 중공군의 친절과 예의도, 모두 다른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될 것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해대는 서술자에 의해 경험된 ‘사실’로서 전달”<sup>49)</sup>된다. 전쟁의 사실들은 이런 이야기로 인해 실상에 가깝게 밝혀지고, 서술자(작가)는 여러 이야기들을 산만하게 나열함으로써 전쟁인식의 다원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자전소설 두 편은 식민지 시기의 서술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전쟁기의 경험을 통해서 생활사, 또는 풍속사적 측면으로 그 시대를 복

47)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서문과 관련된 작품 설명은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앞의 책)의 235-237쪽 참조.

48) 배상미, 「망각된 식민지 시기 기억의 복원」, 『여성문학연구』 6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8 참조.

49) 이선미, 앞의 글, 229쪽.

원한다. 복원되어 실물화되는 통째로서의 세계는 권력의 편에 가담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순간의 우연적인 선택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의 뒤엉킴으로 표현된다. ‘복원’은 심각하면서도 유쾌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 비열한 자기의식과 시대 감각 등을 드러내며, 한 세상을 실감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통째로서의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기의 문학으로 최소한의 윤리를 서사적으로 구성한다. 박완서의 소설은 정치적 민주화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걷히고 신자유주의적 속물화가 자연스러운 태도로 일반화되면서,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요건들이 뒤섞여 혼란과 환멸과 냉소가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1990년대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처리하며 전쟁경험을 재현한다. 1990년대 박완서 소설은 이 복원의 방법론으로 전쟁경험의 서사적 재현을 마무리한다.

#### 4.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전쟁경험을 ‘기억하기’ 서사가 공론장을 확장하다

박완서 문학에서 전쟁경험의 서사적 재현은 등단작 『나무』에서 시작되어, 작심하고 자전적 경험을 속속들이 펼쳐내듯 소설로 쓴 1990년대 자전소설 두 편으로 완결된다. 작가 스스로도 ‘울귀먹는다’는 표현을 쓰듯이, 자전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냉전 사회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를 개개인의 복합적으로 얽혀들어간 일상사로 표현하였다. 전쟁경험을 ‘기억하는’ 서사는 전쟁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말하는 행위’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재현한다. 박완서 소설의 기억 서사는 ‘기억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기에 ‘서술 시점’의 사회를 문제삼는 것이 된다. 창작 기간 내내 작가가 서있는 그 자리의 삶의 문제와 대면하듯이 소설을 썼기에 리얼리즘 작가로 평가

받았던 박완서는 과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 한국전쟁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현실의 맥락에서 찾아내 끄집어내듯이 창작 기간 내내 전쟁경험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접속해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이 서사적 기운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 2009년에 발표된 「빨갱이 바이러스」까지 이어진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정부가 대구로, 부산으로 옮겨가며 피난살이를 하던 탓에 전국토는 인민군 세상이 되었다가 국군 세상이 되었다가, 또다시 편이 바뀌는 전쟁터와 같았다. 누구 편인가에 따라 삶과 죽음이 판명나기에 누구 편이기도 어려웠던 전쟁이었다. 한 마을 친척 간에도 적군과 아군이 뒤섞이는 참혹한 갈등을 일상적으로 겪기도 한다. 등단작에서부터 전쟁경험을 다룬 박완서 소설이 줄곧 문제시한 전쟁의 상황이다. 일상적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절과 변절을 거듭하는 인간은 가장 참혹하고 비열한 삶의 상황에 던져진 예외적 상태, 사회적 관계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별거벗은 상태로 던져진 존재였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만큼 전쟁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삶과 상관없는 전쟁경험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도 기념되지 못하고, 전쟁과 관련한 행위 때문에 전쟁 이후 사회에서 혹독하게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사람들. 박완서 문학은 이와 같은 삶이 전쟁의 보편적 경험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소설 속에 그려낸다. 「빨갱이 바이러스」는 이 전쟁의 성격이 고스란히 투영된 장소인 휴전선 인근 지역 양양에서 살았던 서술자가 “자반 뒤집기 전란”<sup>51)</sup>이 야기한 삶이 2000년대에도 여전

50) 한국전쟁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쟁경험을 다룬 작가임에도 박완서는 현실비판의 주제의식이 강한 리얼리즘 작가, 당대적 일상의 풍경을 자본주의 비판으로서 서사화하는 작가로 평가된다. 대개의 경우 “지금, 여기의 작가”(성북문화재단에서 기획출간한 문인사기획전 자료집 『지금 여기 박완서』, 2019 참조)로 호명된다. 전쟁경험을 재현하는 작품에서 무엇을 문제삼는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박완서 문학의 주제는 언제나 서술자가 딛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평가다.

51)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기나긴 하루』, 문학동네, 2012, 83쪽. 양양은 휴전선

히 지속되는 현실임을 고백하듯이 말하는 소설이다.<sup>52)</sup>

2000년대 한국사회는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자유의 흐름을 따라 고조된 인권 감각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체성, 생명관리를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상상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발전해간다. 장애, 여성, 노년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었고,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도 상당했다.<sup>5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와 관련된 가족사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여전한 금기에 해당한다.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하룻밤을 지내면서 자신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나누고 공감하며 고백의 후련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월북한 삼촌을 집 마당에 묻었던 휴전 즈음의 기억은 절대 발설할 수 없다는 냉전의 감각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클로즈업 하듯이 보여준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1970-80년대의 폭압적 지배구조와 검열의 사회의식이 거대한 어망처럼 일상에 드리워져 통제하는 양상은 쉽

---

인근 지역으로 지금은 남한에 속하지만, 전쟁 중에는 북한 지역인 적도 있고, 어느 때는 남한 지역이기도 했던 곳이다. 점령군이 수시로 바뀌던 곳이어서, 적의 점령 상태가 그다지 낯설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쟁 전에는 북한이었다가 휴전이 되면서 남한 땅이 되었던 곳이어서 분단과 냉전의 상황을 상징하는 공간일 수 있다. .

52) 「빨갱이 바이러스」는 작가의 타계 직전인 2009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마지막 작품임에도 초기 소설에서 다루었던 한국사회의 ‘빨갱이 콤플렉스’가 그대로 중요한 삶의 문제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다루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였고, 박완서 문학의 전체적 성격을 해석하게 하는 실마리로 역할한다. 박성은,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속 마당의 딜레마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우현주, 「상생과 불협화음의 경계 선 말년성(latency) - 박완서의 빨갱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권영빈, 「사라진 신체들의 카트로그라피 - 빨갱이 바이러스에 나타난 박완서 문학의 공간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78,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참조.

53) 2000년대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과거의 국가폭력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진실규명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5년 대법원 최종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던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8명의 사형집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0년대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즉 출판시장이나 문화담론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한다. 정부나 국가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87년의 정권 교체와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국가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출판시장의 화제성 이슈나 사회적 담론 등에서 다양하고도 이념적 수위가 높은 논의들이 활성화된다. 반면에 2000년대는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또는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이념적 통제나 검열 속에 묻히거나 왜곡된 사실들과 관련한 진실규명 논의가 활발해진다. 사회적 기억 연구는 이 시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국가의 공식 기관을 매개로 비약적으로 성장한다.<sup>54)</sup>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진실규명과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활동은 학술담론장의 전쟁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기도 하면서 분단과 냉전에 관한 역사담론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요소들을 거둬낸다.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태도 변화는 민주주의적 인권 의식이나 제도 등의 변화를 고민하는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회인식,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성찰하게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적 전쟁 기억에 반(反)하는 경험도 별다른 마음의 검열없이 공론화할 수 있다는 ‘상식적 관념’이 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는 70-80년대 가부장적 권력구조에서 배제된 여성서사가 사회담론을 주도하던 시기이며, 2000년대에도 여성의 사회성과 관련된 담론이나 문화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만들어낸다.<sup>55)</sup> 『빨갱이 바이러스』는 2000년대

54)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와 한국의 정부, 정치권에 서 이루어진 과거사 진실 규명은 반공주의 냉전사회의 ‘공적 기억’에 의해 억압되거나 은폐되고 잊혀진 ‘사실’을 복원하는 사회적,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지식담론장에 영향을 끼친다. 정근식, 앞의 글 참조.

55)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6,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2 참조.

한국사회의 정치적 감각이나 사회적 기억과 관련한 학술적 담론상황을 반영하듯이, 그 논의들 위에 한국전쟁의 경험과 기억을 배치한 것이다. 즉 권력의 주변으로 배제된 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2000년대식 사회담론을 구성하는 와중에 빨갱이와 관련된 전쟁경험도 이 연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그런데 한 자리에 놓고 보니, 이 사회적 약자들과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급기의 영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소설의 전언이다. ‘빨갱이’와 연관된 가족력이나 사상은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의 보균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의 대상이며 제거의 대상인 것은 여전하다는 정치적 감각이다.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재현의 서사는 이렇듯 200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대단원의 끝을 보여준다. 박완서 소설창작의 마지막까지도 전쟁경험은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시약’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박완서 소설에 관한 비평이나 연구 역시 2000년대 변화를 역동적으로 반영하는 듯 어떤 계보를 형성한다는 점은 공교로우면서도 흥미로운 박완서 문학의 사회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앞선 여러 연구에서 논한 바 있듯이, 박완서의 등단이 1970년에 이루어졌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일정한 분량의 소설을 창작해온 작가의 경력에 비해, 문학 전반에 대한 비평이나 연구는 1991년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56)</sup> 상당한 분량의 소설이 매시기 발표되었음에도, 문단에서 이렇다할 비평이 없었던 점은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 저간의 사정은 1991년 인류학자인 조한혜정의 도발적인 연구로 해석되었고,<sup>57)</sup> 이후 2011년 박완서 타

56) 1991년 『작가세계』는 박완서를 특집으로 다룬다. 기본적인 형식적 구성을 갖춘 박완서 문학에 관한 연구는 이 특집논문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에 박완서 비평이나 연구를 선별해서 편집한 단행본이 출간되나, 비평문이나 논문을 선별한 원칙이나 논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 권영민 외, 『박완서론』, 삼인행, 1991 참조.

계 이후, 박완서 문학 비평의 관점에 대한 집중 분석의 형식으로 박완서 문학 연구에 대한 연구, 즉 메타연구가 진행된다.<sup>58)</sup> 특이하게도 박완서 문학에 관한 비평이나 연구는 2000년까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가, 2011년 타계 이후 붓물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연구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1970년 등단한 이래로 별다른 굴곡없이 꾸준히 일정량의 소설을 발표하고 에세이의 형식으로 사회적 발언도 했던 작가의 창작활동에 비해, 그 문학에 관한 비평이나 연구는 드라마틱할 정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조한혜정의 연구가 남성중심적, 또는 가부장주의적 비평의 정치성을 폭로 하듯이 기존의 비평 관행을 질타했다면, 박완서 문학연구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 역시 도발적인 태도로 박완서 문학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sup>59)</sup>

박완서 문학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도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심지어 학술지 인용지수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에 가장 많이 연구된 작가로 꼽히기도 한다.<sup>60)</sup> 당연히 이 현상은 작가가 사망한 시기에 맞춘 특별한 연구 붐으로 환원되지 않기에 문제적이다.<sup>61)</sup> 한국사회

57)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서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봄.

58)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참조.

59)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박완서 문학 ‘연구’의 특성을 사회역사적 담론의 흐름과 연관지어 해석한 이선미와 신셋별은 2011년과 2015년에 기존 연구경향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박완서 문학 연구에 관한 연구는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박완서 문학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현상이다. 이선미, 위의 글, 신셋별,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 72, 동악어문학회, 2017.8 참조.

60) 최진석 외,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 - 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12.

61) 박완서 문학 연구가 2011년 작가의 죽음 이후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 현상은 작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상으로 특화되지 않고, 이후 점차적인 연구의 증가추세로 이어져, 박완서 문학 연구의 경향성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최진석 외, 위의 글 참조.

의 민주화와 과거사에 관한 진실규명과 같은 정치사적 현안을 담론화하는 양상이 수위를 높여갈수록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경험 서사의 재현양상이 공명하고, 그에 따라 ‘전쟁경험 말하기’의 사회적 현실이 연구활동을 자극하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감각의 보편화를 향해 진전되는 것이었고,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의 사회적 흐름은 박완서 문학 연구를 더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부가되기도 한다.<sup>62)</sup> 이 과정들은 다시 전쟁경험을 해석하는 학술장의 변화들과 맞물려 박완서 문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한다.

박완서의 등단작 『나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완서의 전쟁경험 서사는 전쟁/폭력과 피해자로서 인간의 문제, 전쟁/폭력의 신체성과 기억 서사의 관계 등 폭력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사유한다. 창작기간 내내 기억하는 시점의 현실에서 전쟁/폭력이 신체화되는 양상을 냉전의 정치로서 문제삼는다. 그리고 기억하는 시점의 현실정치를 재현하는 서사와 공명하며 그 문학을 연구하는 지평이 확장/심화된다. 박완서 소설의 기억서사가 변주되는 과정이나 그에 관한 연구의 추세는 한국사회의 정치의식, 혹은 상식이 구성되는 사회담론 변화 그 자체를 대변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정도다.

박완서의 전쟁경험을 재현하는 서사는 단순히 과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말(할)하는 발화 시점의 사회현실을 탐구하며 ‘기억하기’를 한다. ‘기억하기’라는 행위성이 사회적 개입, 혹은 ‘연루됨’<sup>63)</sup>으로 전개될 때, 소설은 공론장적 기능을 실현하기도 할 것이다.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가 변주되는 과정이 하나의 궤적을 이루듯이, 1970-80년대 전쟁경험 서사가 1990년대 전쟁경험 서사의 변이들과 함께 비평적 연구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학작품의 창작과 문학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사회적 참여, 또는 ‘연루됨’의 사회적 행위로

62) 오자은, 앞의 글 참조.

63) 인류학자 조문영은 인간의 관계성과 사회적 행위 등을 ‘연루됨’으로 개념화한다. 조문영, 『연루됨』, 글항아리, 2024 참조.

서 서로 연동되고 공명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창작과 해석의 관계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소설 창작과 해석의 복합적 읽힘의 과정들은 전쟁경험과 서사적 재현의 이론화에 중요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_\_\_\_\_,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_\_\_\_\_, 「엄마의 말뚝1, 2」,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2.  
\_\_\_\_\_,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_\_\_\_\_, 『기나긴 하루』, 문학동네, 2012.  
\_\_\_\_\_, 장미영, 『예술사 구술 총서 박완서』, 수류산방, 2012.  
한강, 『소년이 온다』, 창작과비평사, 2014.

### 2. 논문

- 강진호, 「전쟁기의 증언과 반공주의의 규율 -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 개작 양상」, 『인문과학연구』 40,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87-116쪽.
-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의 탄생, 혹은 점령당한 영혼에 관한 보고서」, 『나목』, 세계사, 2012, 380-396쪽.
- \_\_\_\_\_, 「전쟁 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논총』 5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7, 1-35쪽.
- \_\_\_\_\_, 「증강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83-208쪽.
- 권영빈, 『박완서 소설의 젠더지리학적 고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현대소설연구』 9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9, 33-65쪽.
- 김명훈, 「‘학살은 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사화하기: 1980년대 후반 소설의 정치적 무의식과 ‘거창 사건」, 『동악어문학』 79, 동악어문학회, 2019.10, 11-47쪽.
- 김양선, 「2000년대 한국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 밖』 21, 영미문학연구회, 2006, 40-61쪽.
- 김연수,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2017.여름, 312-332쪽.
- 김영미, 『박완서 문학의 ‘저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박완서 문학의 세대론적 특성과 의미 - 1990년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145-182쪽.
- 김윤식, 「기억과 묘사」,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107-133쪽.
- 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 - 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허학보』 64, 상허학회, 2022.2, 399-444쪽.
- \_\_\_\_\_, 『한국 이행기 정의 국면의 제노사이드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_\_\_\_\_, 「두 갈래의 기억 -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 피해자의 구술사와 자전소설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8, 365-410쪽.
- 박성은,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속 ‘마당’의 딜레마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12, 157-182쪽.
- 배상미, 「망각된 식민지 시기 기억의 복원」, 『여성문학연구』 6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2, 10-39쪽.
-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한 <살기>」, 『박완서 문학길찾기』, 세계사, 2000, 300-314쪽.

-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333-359쪽.
- \_\_\_\_\_,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 72, 동악어문학회, 2017.8, 205-232쪽.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 박완서 자전소설 읽기」,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329-350쪽.
-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12, 30-59쪽.
-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12, 183-224쪽.
- 유중호, 「고단한 세월 속의 삶」, 『나무』, 민음사, 1981, 374-386쪽.
-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7-27쪽.
-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217-242쪽.
- \_\_\_\_\_,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29-58쪽.
- \_\_\_\_\_, 「‘부역(협의)자’ 서사와 냉전의 마음 -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4, 345-378쪽.
- \_\_\_\_\_, 「냉전과 소설의 형식, ‘(경남)진영’의 장소성과 사회주의자 서사(1)」,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2021.4, 365-396쪽.
-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생존 경쟁과 주권 권력」, 『인문학연구』 6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2, 387-314쪽.
- 이승우,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끝낼까」, 『고요한 읽기』, 문학동네, 2024, 200-201쪽.
-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36, 수선사학회, 2010.6,

101-140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6, 409-454쪽.
- \_\_\_\_\_, 「박완서의 1980년대 -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12, 357-383쪽.
- 장원석,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정치와 평론』 21, 한국정치평론학회, 2017.12, 113-143쪽.
-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6, 347-394쪽.
- 정의진, 「문학적 픽션과 공동체의 정치학, 한강의 『소년이 온다』」, 『비교한국학』 27-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12, 121-163쪽.
-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서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봄, 97-144쪽.
-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증명장치의 기원」,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4, 449-480쪽.
- 최진석 외,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 - 2010년대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12, 131-175쪽.
- 한경희, 「나는 왜 ‘여성’이 되었는가 - 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 (1978)론」,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9, 519-557쪽.

### 3. 단행본

- 권현익,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부산 경남 지역)』, 역사비평사, 2002.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3.

- \_\_\_\_\_,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비, 1993.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윤태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조문영, 『연루됨』, 글항아리, 2024.
-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 서경식, 『시대의 증언자 프리모레비를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2006.
- 사라 아메드, 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 오카 마리, 김병구 율김, 『기억 서사』, 교유서가, 2024.
- 프리모 레비, 이현경 율김,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2007.
- \_\_\_\_\_, 『주기율표』, 돌베개, 2007.

<Abstract>

## Variation on the Memory Narrative and Genealogy of Interpretation

Lee, Sun-mi\*

In Park Wan-seo's literature, the narrative representation of war experiences began with her debut work, <Namok>, and was completed in two autobiographical novels written in the 1990s, in which she determinedly unfolded her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in detail. Memory narrative reflects the reality at the time of memory. Park Wan-seo's narrative of war experience recreates an era that speaks of the experience of war. Then, the changing aspects of Korean society are revealed. Society and literature are responding. Research on Park Wan-seo's literature also shows this correspondence. Since the 2010s, research on Park Wan-seo's literature has followed the trajectory of Park Wan-seo's war experience narrative as it has changed. Novel creation and the research do the novel resonate with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Key Words: war experience, memory narrative, post/cold war, Park Wan-seo, Korean war, interpretation, transitional justice phase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15일

---

\* Kyungnam University.